



진안군, 마늘 수확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나서

진안군은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나서며 농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은 17일 마령면 평지리 일원 12,334㎡ 부지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농산촌미래국, 농업기술센터, 마령면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늘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태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전춘성 군수는 직원들과 함께 직접 수확 작업에 참여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산동면·죽향동, 포도농가 일손 돕기 실시

남원시 산동면(면장 안길재)은 지난 16일, 산동면·죽향동·건설과 직원 30여 명이 관내 식량리 소재 포도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종합행정 담당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참여자들은 약 600평 규모의 포도 하우스에서 포도 봉지 싸우기 작업을 실시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의 작기 영농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안길재 산동면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흥덕파출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흥덕파출소(소장 박주연)은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예방 활동은 관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설명과 홍보물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대출을 미끼로 한 '저금리 대출대출형' 보이스피싱과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가족, 친구 전화번호를 통한 '지인 사칭형' 범죄 사례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2026 인권존중의 날' 캠페인 성료

상호존중·배려 문화 확산 앞장... 심리상담·인권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임직원 간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 인권존중의 날'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대병원은 17일 고객인권지원실(실장 노시균) 주관으로 병원 내 구성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2026 인권존중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호흡기질환센터와 어린이병원 앞 로비, 새만금홀 등 병원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한 '바운스 심리상담'에서는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불안 검사, 맞춤형 심리상담이 제공됐다. 또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DIY 키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번아웃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와 인권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인권 골든벨(QR코드 O/X 퀴즈)'과 상호존중 사진·슬로건 공모작 전시회도 마련돼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행사 후반부에는 새만금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연극형 교육'이 진행됐다.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연극 형식으로 재현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인권존중의 날 캠페인이 임직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장애인의 날 소방안전체험부스 운영

남원소방서는 지난 16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 요령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CPR) 실습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점자 안내서나 그림으로 쉽게 풀어쓴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책자'를 배부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나무협동조합 및 쓰임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일 1가구 소통행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가구 제작 및 노후 가구 수리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혜진 초록나무협동조합 대표는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번수봉 쓰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민관이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 등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폭염 시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의욕 시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낮 시간 등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야외활동과 무리한 작업 자제하기 등 핵심 건강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박순덕 여사, 정읍 칠보면에 1250만원 장학금 기탁

"못 배운 한, 고향 후배들이 풀어주길"

평생 폐지를 주위 모은 돈으로 6년째 고향 후배들을 돕고 있는 박순덕 여사가 지난 15일 정읍시 칠보면에 장학금을 기탁해 학생 29명에게 총 1250만원이 전달됐다.

칠보면은 이날 행복이음센터 1층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박순덕 여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박 여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건넸다.

칠보면 수청리가 고향인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달래고자 평생 폐지와 강통을 주워 알뜰하게 모은 돈을 성금으로 기탁하며 고향 학생들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박 여사는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700만원의 장학금을 쾌



척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억 4350만원의 성금을 지역 사회에 내놓았다. 박순덕 여사는 "고향의 학생들을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어린 시절 공부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던 만큼 고향의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877

익산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898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8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